



EU, IMF 1,500억 유로 추가출연 합의

정인영 연구원

■ 12월 19일(현지시각) EU 재무장관 회의 결과,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IMF에 1,500억 유로를 추가 출연하기로 합의함.

- 이는 앞서 9일에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IMF에 추가출연하기로 결의한 비유로권 지원분 500억 유로를 포함한 총 2,000억 유로에는 미치지 못하는 규모임.
- 성명서에 따르면, 유로존 국가들 중 독일이 415억 유로, 프랑스가 314억 유로, 이탈리아가 235억 유로, 스페인이 149억 유로, 네덜란드가 136억 유로를 지원기로 함.
- 비유로존 국가들 중에서는 체코, 덴마크, 폴란드, 스웨덴 등이 의회 승인 여부를 조건으로 지원 협력 의사를 밝힘.
- 영국은 309억 유로 지원을 요청받았지만, 지원 여부는 내년 초 G20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힘.
- 일각에서는 영국이 IMF의 유로존 위기국가 지원을 위한 자금 확충은 G20 차원에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동참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함.
- 구제금융하에 있는 그리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은 이번 기금 출연 대상에서 제외됨.

■ 한편 유럽 의회에서 Draghi ECB 총재는 유로존 붕괴가능성을 시사하며 각국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함.

- 내년 1/4분기에 은행채권 2,300억 유로, 정부채권 3,000억 유로, 담보채권 2,000억 유로 이상의 만기가 도래함을 상기시키며 채권시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매우 심각할 것임을 경고함.
- 또한 유로는 불가역한 프로젝트로서 유로존 붕괴 시 회원국들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할 것임을 경고하며 신재정협약 추진을 비롯한 각국의 협력을 촉구함.
- 한편 ECB 국채 매입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함.

(WSJ, FT 등, 12/19)